

## 여행 경험 및 계획 추이

- ▶ '18년 6월19일(화) 배포
- ▶ 자료 총 2매

기 관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
책 임	김형곤 소장/Ph.D/대학원 교수
문 의	김민화 연구원/Ph.D
이 메 일	kimmh@consumerinsight.kr
연 락 처	02) 6004-7643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컨슈머인사이트 공동기획>

### '18년 국내여행 감소, 해외여행 증가 지속될 것

- 여행 경험과 계획 모두, 전년대비 국내 감소·해외 증가
- 여름휴가 여행도 추이 계속될 듯

금년 1월-5월 중의 여행 경험과 계획을 보면 작년 동기에 비해 국내여행은 줄고, 해외여행은 늘었다. 특히 국내여행이 전년대비 더 줄어들고 있다. 다가오는 여름휴가도 국내는 감소, 해외는 증가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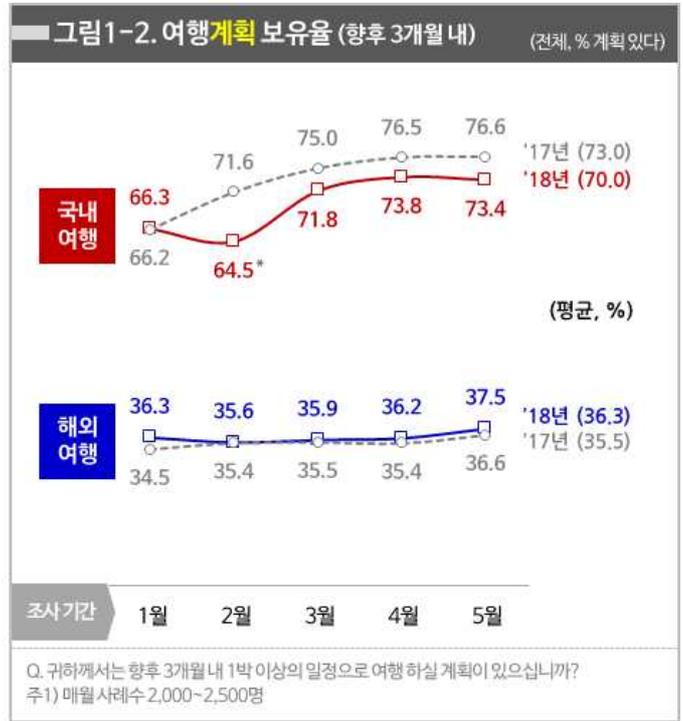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여행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공동 수행하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매주 500명 조사)에서 '17년과 '18년 1월-5월의 여행 경험과 계획을 비교 분석했다.

**▲여행 경험률;** 올해 1월-5월의 국내여행 경험률(지난 3개월간 1박 이상)은 66.2%로 작년(69.1%)보다 2.9%p 낮았다. 국내여행의 감소가 뚜렷하다. 반면, 해외여행 경험은 28.2%로 작년 동기(26.3%)보다 1.9%p 높았다[그림1-1]. 즉 국내여행은 2.9%p 감소하고, 해외여행은 1.9%p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이 경향은 지난 5개월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여행 계획률;** 향후 3개월 내 1박 이상의 일정으로 국내여행을 할 계획은 70.0%로 작년 동기(73.0%)보다 3.0%p 낮았다. 반면 해외여행은 36.3%로 작년(35.5%)보다 0.8%p 높았다[그림1-2]. 여행계획 역시 국내는 줄어들고 해외는 늘어나고 있다.

4월과 5월의 여행계획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여름휴가 계획이다. 올해 여름휴가 여행은 작년보다 심한 국내여행 부진, 해외여행의 인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국내여행의 활성화가 핵심문제다. 국내여행이 부진하면 해외여행은 늘게 마련이고, 관광수지적자도 줄일 수 없다.

[그림1] 여행 경험을 및 계획을 추이 ('17년 vs. '18년 1월-5월)



\*'18년과 '17년 2월 자료에 차이가 있는 것은 '18년은 2월 중순, '17년은 1월말에 '설 연휴'가 있었기 때문임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는 매주 여행소비자 500명(연간 2만 6천명 조사)을 대상으로 하는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조사 결과와 분석 리포트는 [www.consumerinsight.kr/travel](http://www.consumerinsight.kr/travel) 에서 볼 수 있으며, 2016-2017년 조사 결과를 요약한 자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리포트 다운로드 받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김민화 연구원(컨슈머인사이트 연구위원)/Ph.D  
정경식 컨슈머인사이트 책임연구원/Ph.D

kimmh@consumerinsight.kr 02)6004-7643  
jungks@consumerinsight.kr 02)6004-7627